



## 공정사회와 사법시험 존치를 희망하며

1956년 창간된 月刊『考試界』가今年 6월호로써 創刊 60周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月刊『考試界』를 애독해 주셨던 수많은 독자들, 그리고 좋은 글을 계속 보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執筆者 선생님들께 심심한 감사 를 드립니다.

月刊『考試界』가 창간될 무렵인 1950년대 후반은 6.25 전쟁이 끝난지 불과 몇 해 되지 않은 때여서 전쟁의 상처가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제원조를 바탕으로 살아가던 시절이어서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전문잡지를 새로 창간하고 이를 계속 발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月刊『考試界』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날까지 깨끗하게 60년 동안 확고히 자리를 잡아온 것은 그 의미가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요즈음에는 어딜가나 경제사정이 건국 이래 최악이고들 합니다. 특히 출판계나 잡지계는 더욱더 그 사정이 심합니다.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도의 경우에는 10개의 출판사 중 8개 출판사가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영업 이익도 고작 1%도 안되는 0.7%를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유명작가의 표절 논란, 구조조정의 여파, 분사(分社) 등 다양한 원인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시사물잡지나 오락물잡지에 비하여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는 전문잡지를 지난 60년 동안 한 호의 결호도 없이 발행하여 왔다는 점은 대단한 일입니다.

- 月刊『考試界』 발행인
- 도서출판 고시계사 대표이사
- 법무경영교육원 원장



정 상 훈

月刊『考試界』의 창간 후 지난 60년 동안을 나름대로 자평해본다면 첫째, 대한민국의 법률문화 창달에 일조를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순수 법률학술지가 없었던 학문 초창기의 어려운 사회여건 하에서 그 공백을 메워 법학전문잡지로서, 그리고 법학계의 주요쟁점이 다루어지는 논의의 場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하면서 신진 법학자들의 논문을 게재하여 연구를 격려하기도 하였습니다.

둘째,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행정부·사법부·입법부의 핵심동량을 키우는데 헌신하겠다는一念으로 고등고시 시험제도의 質을 향상시키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고시수험생들의 소리를 담아 시험주관처의 여론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올바른 제도개혁을 위한 정론지로서의 책무도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 月刊『考試界』가 충실하게 수행해온 이러한 역할은 미래에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나, 정보화, 글로벌화로 대표되는 21세기와 논란이 많은 로스쿨 관련문제, 국가고시제도의 개편 등 새로운 난제들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2일 작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실시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일부에 문제가 있었지만 제도개선을 통해서 잘못된 문제점을 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스쿨 출범 이후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번의 감사조차 없이 로스쿨을 감싸고 돌던 교육부가 그저 형식적인 조사에 그쳤 로스쿨을 변호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사법시험 체제 하에서는 약 50년 동안 시행해오던 중 입학 공정성에 대한 시비에 휘말린 적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고위공직자의 자녀라도 사법시험에 대한 엄청난 공포감이 있었고, 그 시험에 합격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떳떳하게 축하하고 받는 분위기가 대세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회지도층 자녀가 로스쿨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본인이 아무리 실력이 출중하다고 하더라도 큰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어색한 사회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는 아무리 정부와 로스쿨의 학교 측에서 입학과정이 공정하다고 말한들 일반 국민들에게 완전히 신뢰를 주기에는 별 소용이 없어 보입니다.

그 당시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학력·재력·배경의 열세를 딛고 오직 본인의 강한 정신력으로 공부한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은 공정하고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시험제도의 혜택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험합격 후 법조사회에 진입해 보니 명문대학 출신의 막강한 벽을 실감하였고 그 카르텔을 깨보려고 시도한 것이 로스쿨 제도의 도입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어떠한 사회적 배경과 빈부의 차이에도 흔들리지 않는 열린 사회를 보장하는 사회가 곧 정의가 살아 숨쉬는 공정한 사회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노력만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모든 국민들에게 열어줘야 합니다.